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29

SPECIAL POINTS OF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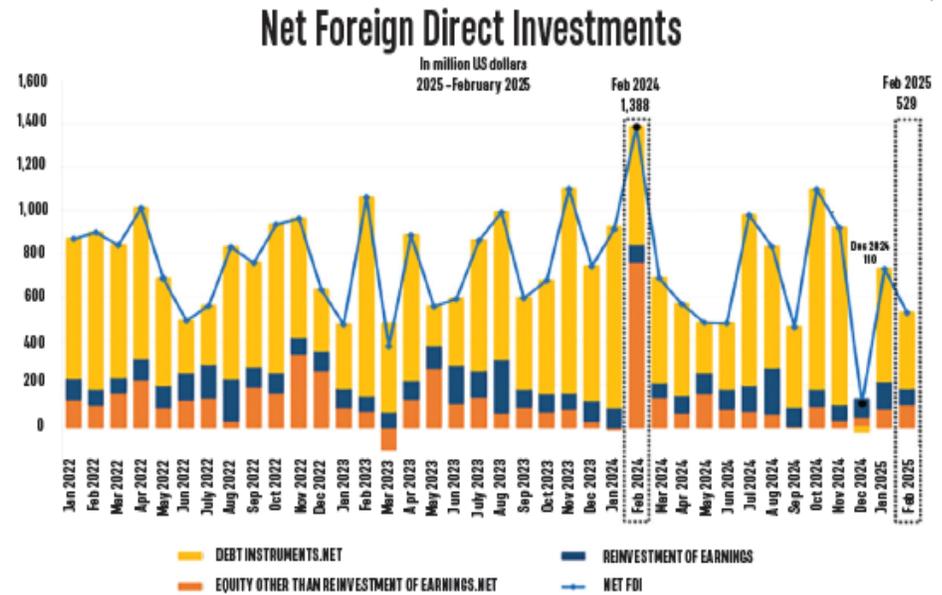
- 2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61.9% 감소...5억2900만 달러 — 필리핀 중앙은행(BSP) — page 1-2
- 올해 첫 4개월간 외래 관광객 210만 명 방문 — page 2
- DOF 장관: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 성장 최우선 과제 — page 3
-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 산업의 현대화가 회복력을 높일 것 — page 4
- 세관, 최소한의 규정 폐지 촉구 — page 5
- 수출업체들, 우려 표명하며 정부 지원 확대 요청 — page 5-7

UPCOMING EVENT

- [May 14, 2025] 2025 JFC 클럽 국제 믹서 — page 7

2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61.9% 감소...5억2900만 달러 — 필리핀 중앙은행(BSP)

May 13,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Source: BSP

채권, 기업 지분 투자 및 이익 재투자에서 감소세 뚜렷

2025년 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5억2,900만 달러로, 2024년 2월의 14억 달러에서 6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자료가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FDI 유입 감소는 비거주자의 자본 참여 지분 투자 순유입이 85.9%나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은 전년 동월 7억6,400만 달러에서 올해 2월에는 1억800만 달러로 줄었다.

비거주자의 채권 투자 순유입도 지난해 같은 달 5억4,000만 달러에서 2025년 2월에는 3억4,800만 달러로 35.4% 감소했다.

이익 재투자 역시 8,400만 달러에서 7,300만 달러로 13.1% 줄어들었다.

연초부터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2월 FDI 순유입은 총 13억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의 23억 달러보다 45.2% 감소했다고 BSP는 밝혔다.

자본 유입 출처

BSP는 2025년 2월의 자본 참여 지분 투자의 대부분이 일본, 미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에서 유입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에 집중되었습니다.”라고 BSP는 설명했다.

FDI는 실제로 필리핀에 유입된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거주 직접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보유한 경우의 투자를 의미한다.

FDI에는 또한 비거주 자회사나 계열사가 거주 직접투자자에게 한 투자도 포함된다.

[Cont. page 2]

2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61.9% 감소...5억2900만 달러 — 필리핀 중앙은행(BSP)

[Cont. from page 1]

실제 투자 vs. 투자 공약

BSP는 자사의 FDI 통계가 다른 정부 기관의 투자 자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BSP의 FDI 통계는 실제 투자 유입을 포함합니다. 반면, 필리핀통계청(PSA)이 발표하는 승인된 외국인 투자 자료는 투자진흥기관(IPAs)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투자 공약을 나타내며,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BSP는 밝혔다.

“또한 PSA 자료는 BSP가 정의한 외국인 지분 10% 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며, PSA의 외국인 투자 통계는 지분 철회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BSP는 설명했다.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fdi-feb-net-inflows-drop-61-9-to-529m-bsp/>

올해 첫 4개월간 외래 관광객 210만 명 방문

May 12,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Tourists enjoy kayaking in El Nido, Palawan on April 8. — PHILIPPINE STAR/KRIZ JOHN ROSALES

필리핀은 4월까지 21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관광부(DoT)가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2% 감소한 수치로, 주로 한국에서의 방문객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문객 수는 193만 명의 외국인 여행객과 17만 815명의 해외 필리핀인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은 여전히 필리핀 관광객의 주요 출발국으로, 46만 8,337명의 여행객이 방문해 22.2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에서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18% 감소했다.

“12월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L. 리카포르가 Viber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의 관광객 유입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거나 개선된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콜리어스 리서치의 조이 로이 H. 본독 연구 이사는 원화 약세가 한국인의 여행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관광 담당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도와 일부 중동 국가와 같은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Viber를 통해 말했다.

그는 DoT가 항공사와 호텔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매력적인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을 겨냥한 골프 관광 홍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 관광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숙박 산업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으며, 일부 통합 리조트(카지노)는 “올해 초부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두 번째로 큰 방문 시장으로, 36만799명의 여행객(17.14%)이 방문했다. 미국에서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9% 증가했다.

일본은 15만6,532명의 방문객(7.44%)을 기록했으며, 일본인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18.14% 증가했다.

상위 5개 주요 시장에는 호주와 캐나다도 포함되었으며, 각각 11만1,113명과 9만9,152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12/672034/visitor-arrivals-hit-2-1m-in-first-four-months/>

DOF 장관: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 성장 최우선 과제

May 13,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마르코스 행정부는 경제 개혁 agenda를 추구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며, GDP 성장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재무부 장관인 랄프 G. 렉토는 월요일 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개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간 선거가 국회에 새로운 역학을 가져오더라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것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평화로운 선거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말했습니다.

올해 중간 선거에서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현재는 사이가 멀어진 부통령 사라 두테르가 각기 다른 정치적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상원의원 중 절반인 12명이 두테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두테르는 마르코스 대통령, 영부인 리자 아라네타-마르코스, 그리고 하원의장 마르틴 로무알데즈를 암살하려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여 탄핵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DO 캐피탈 & 인베스트먼트 사의 에두아르도 프란시스코 사장은 BusinessMirror에 투자자들은 평화로운 선거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와 두테르는 2022년 UniTeam 동맹에서 러닝메이트였으나, ‘탐발로슬로스’ 비디오의 공개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두테르가 2024년 6월 교육부 장관직과 반공주의 테스크포스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가 3월에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의해 정부의 협력으로 체포된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핵심은 행정부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필리핀 개발 계획을 유지하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균형이 없다면 우리의 발전 경로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레예스 타칸돈 & 컴퍼니의 수석 고문인 조너선 라벨라스는 BusinessMirror에 말했습니다.

정부 지출은 여전히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지만, 라벨라스는 국가의 GDP가 “실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와 선거에서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관망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라벨라스는 이 신문에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은 다자기구, 은행 및 신용 평가 기관의 단위들에 의해 하향 조정되었으며, ANZ 리서치에서는 가장 낮은 5%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무 장관은 의회가 6월 2일에 세션을 재개하면 경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느린 5.4%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면 정부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렉토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의회에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정책과 실행 모두에 대해.”라고 렉토 장관은 말했습니다.

재무부(DOF)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세 및 정부 수익 최적화(Wealth Tax Harmonization, Growth)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업 산업의 재정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644조 페소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분기까지 998.2억 페소를 거둬들였습니다.

재무 장관은 최근 정부의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부유세 세율을 통합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000억 페소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Growth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본이득세, 기부세 및 재산세를 통합하여 10%의 세율로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 성장 목표인 6-8%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자, 렉토 장관은 “우리는 이웃 나라들보다 더 나은 성장을 이어가며 필리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낙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13/dof-chief-economic-growth-top-priority-of-marcos-govt/>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 산업의 현대화가 회복력을 높일 것

May 13, 2025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BW FILE PHOTO

필리핀 건설 산업은 계속되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 현대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회복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세금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원자재에서부터 기술 수입까지 모든 것을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오스트리아 건설 기술 기업 플랜라더(PlanRadar)의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인 비탈리 베레즈카가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필리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인 위협은 건설 자재 조달과 관련된 비용 상승과 잠재적인 지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세금 부과는 분명히 현지 건설 산업에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건설 공급망을 방해하고, 따라서 수입 건설 자재의 가용성, 리드 타임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건설 회사인 JCV & Associates의 회장 겸 CEO인 제이슨 C. 발데라마가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비탈리 베레즈카에 따르면, 필리핀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지역 혁신 허브로 자리 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건설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필리핀은 프로젝트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며,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지 건설 업체들은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진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베레즈카는 언급했습니다.

"AI 기반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문서화, 디지털 트윈과 같은 건설 기술을 채택하면 공급망이나 규제 충격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기술(proptech) 플랫폼과 디지털 건설 도구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건설 관련 기술은 또한 이러한 회사들이 조달을 최적화하고, 작업 흐름을 자동화하며, 자재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AI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 산업에서 "강력한 평등화 장치"로 자리잡고 있으며, 예측 분석을 위한 AI 사용은 건설 관리자가 지연이나 비용 초과를 예측하고 위험 감지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AI는 또한 규제 및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중요한 보고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베레즈카는 말했습니다.

"공급업체 기반을 다각화하고 현지 공급망에 투자하면 외부 세금 정책과 물류 계약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전히 국제 파트너십을 유치하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발데라마는 미국의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주요 공급 시장이 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수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므로, 필리핀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 및 완공을 가속화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제조업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산업은 또한 국내의 공급 풀을 확대하고, 수직 통합을 추구하며, 기술을 활용하고, 현대적인 건설 방법과 지속 가능한 실천을 채택해야 한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베레즈카는 또한 산업 참여자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디지털 채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회복력은 단지 방해를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화와 진화의 촉매제로 사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디지털 환경이 갖추어지고, 운영적으로 민첩하며, 전략적으로 다각화된 건설 생태계에 속할 것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5/13/672023/phl-construction-industrys-modernization-to-boost-resilience-amid-trade-uncertainties/>

세관, 최소한의 규정 폐지 촉구

소액 선적물의 면세 입국 중단을 원하는 소매업체들

May 13, 2025 | Alden M. Monzon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의 소매업 협회가 관세청(BOC)에 수입 물품에 대한 디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을 폐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며, 소액 물품의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는 면세 기준선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5월 6일자로 관세청에 제출된 입장문에서 필리핀소매업협회(PRA)는 현재 정책과 이로 인해 지역 업계, 특히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부문이 받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PRA는 문서에서 “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공정 경쟁을 회복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정부 세수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필리핀소매업협회(PRA)는 현행 디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이 1만 페소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 세금과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국산 제품이 세금 부담 없이 국내 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상황을 조래해 국내 소매업체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 미니미스 규정을 조정하거나 폐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광범위한 납용 사례로 인해 면세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으며, 미국은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디 미니미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PRA는 아울러 현재 규정 하에서 위조 상품과 저품질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디 미니미스 면세 기준의 폐지가 소비자 및 국내 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조치는 필리핀 노동력과 국산 제품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제 민족주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PRA는 현행 정책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국내 소매업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국내 소매업 시장은 5~10% 성장해 총 5조 페소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RA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5027/boc-urged-to-scrap-de-minimis-rule](https://business.inquirer.net/525027/boc-urged-to-scrap-de-minimis-rule)

수출업체들, 우려 표명하며 정부 지원 확대 요청

May 11,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is photo shows crates carried by a forklift in the port of Manila.

STAR / File

관세 문제 속에서

마닐라, 필리핀 —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필리핀 수출 산업계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 제조업 팀(Philippine Manufacturing Team)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필리핀 의류 수출업체 연합(Confederation of Wearable Exporters of the Philippines)의 마리테스 죽손-아곤실로(Marites Jacson-Agoncillo) 전무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높은 관세에 노출돼 있으며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필리핀산 여행용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이 820%이며, 의류 제품에는 153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산 신발 수출품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37.5%에 이른다. [Cont. page 6]

수출업체들, 우려 표명하며 정부 지원 확대 요청

[Cont. from page 5]

“의류 및 봉제 부문이 미국과 부문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곤실리오(Agoncillo) 전무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가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발과 의류를 수출하는 이웃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는 중국산 제품이 국경을 통해 우회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관세율을 10%로 낮추기 전에는, 필리핀산 수출품에 대해 17%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낮은 보복관세는 베트남(46%)이나 태국(36%)에 비해 유리하여, 필리핀 가구업계가 미국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만, 필리핀가구산업협회(CFIP)의 아준 발렌수엘라(Ajun Valenzuela) 전무는 여전히 고임금과 전력비용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렌수엘라 전무는 필리핀의 제조업 평균 월 임금이 420450달러로, 베트남의 300350달러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역 전환의 위험도 가구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10%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베트남산 가구의 수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원산지 규정이 철저히 시행되지 않으면 필리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한 베트남과 중국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면서, 필리핀 시장이 이들 국가로부터의 가구 수입으로 넘쳐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에서 전략적 승자가 되기 위해,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발렌수엘라 전무는 정부가 수입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하고 인증된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기술 및 인력 역량 강화에 투자하고, 수입 비용을 낮추며, 필리핀 가구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코코넛협회(United Coconut Associations of the Philippines Inc.)의 마르코 레예스(Marco Reyes) 회장은, 다른 코코넛 수출국들도 관세 인하를 협상 중인 가운데, 필리핀도 미국의 보복관세를 0%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예스 회장은 또한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시장 확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부가가치 코코넛 오일 수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미국 시장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자 산업과 관련해, 필리핀반도체전자산업재단(SEIPI)의 댄 라치카(Dan Lachica) 회장은 기술 업그레이드와 인력 기술 향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정학적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라치카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과 함께, 운영비용, 인프라 격차 문제 해결 및 무역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보복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무역차관을 지낸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라파엘리타 알다바(Rafaelita Aldaba) 명예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제안 목록에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제안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자동차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는 약 30%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라고 알다바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Cont. page 7]

수출업체들, 우려 표명하며 정부 지원 확대 요청 [Cont. from page 6]

필리핀은 무역 협정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세금을 제로로 낮췄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모든 사항들, 예를 들어 면세 목록을 늘리고, 17%의 보복관세를 줄이는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제안 목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 구조를 보면, 미국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알다바 박사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11/2442097/exporters-raise-concerns-seek-more-government-support](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11/2442097/exporters-raise-concerns-seek-more-government-support)

UPCOMING EVENT

ORGANISED BY



2025 JFC CLARK INTERNATIONAL MIXER

Wednesday, 14 May 2025
6:00 PM - 9:00 PM
Clark Marriott Hotel
5398 Manuel A Roxas Highway Zone, Clark Freeport

JFC Members: Php 2,500 • Non-Members: Php 2,800

EVENT PARTNERS



조인트 포린 챔버스(JFC)는 2025년 5월 1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클락 마리엇 호텔에서 JFC 클락 국제 믹서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합니다.

클락에서 열리는 두 번째 JFC 네트워킹 이벤트인 이번 국제 믹서는 다양한 배경과 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서 형성된 관계는 논의와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자극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JFC 네트워킹 이벤트는 200명 이상의 참석자를 끌어들이며,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 비즈니스 및 외교 분야의 저명한 인물들, 그리고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사는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KCCCP 비서실(전화: 8885-7342)이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